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한단(제 1~2 단) 파견사업의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교육관계자 등 65 명이 8월 20일~26일까지 앞으로의 일한 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관계 증진의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방한하였습니다. 일행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부천시·수원시·파주시를 방문하여 교육현장을 비롯한 각종 시찰, 관련 강의 청강, 관계자와의 간담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과 동시에, 일본의 매력과 프로그램 중의 배움 등에 대해 SNS 등으로 발신했습니다.

【참가자】 일본의 교육관계자 총 65 명

【방문지】 방한 (서울특별시 65 명, 경기도 성남시·파주시 65 명, (제 1 단) 경기도 부천시 35 명, (제 2 단) 경기도 수원시 30 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 (온라인 사전학습) :

7 월 20 일(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설명)

【교류】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일단 참가자와의 온라인 의견교환회

■ 파견 프로그램 :

8 월 20 일(수) 인천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8 월 21 일(목) (제 1 단) 【학교방문·교류】 부천동초등학교 (모의수업, 급식체험 포함)

(제 2 단) 【학교방문·교류】 수원공업고등학교 (모의수업, 급식체험 포함)
환영식, 【강의청강】 한국 교육부 “한국의 교육과정”

8 월 22 일(금) 【학교방문·교류】 서울 해누리초중등학교 (모의수업, 급식체험 포함)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8 월 23 일(토) 홈스테이, 【시찰】 명동

8 월 24 일(일) 【시찰】 파주 비무장지대 (DMZ),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남산타워

8 월 25 일(월) 【시찰】 한국국립중앙박물관, 【강의·문화체험】 “한글 캘리그래피에 대한 이해”,
성과보고회

8 월 26 일(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8 월 21 일 【학교방문 · 교류】 부천동초등학교 (일본 교원에 의한 모의수업 모습)	8 월 21 일 【학교방문 · 교류】 수원공업고등학교 (시설견학 모습)
	
8 월 21 일 【강의청강】 한국 교육부 “한국의 교육과정”	8 월 22 일 【학교방문교류】 서울해누리초중등학교 (일본 교원에 의한 모의수업 모습)
	
8 월 23 일 【교류】 홈스테이 (올해 6 월 실시 방일 단에 참가한 한국 교원과의 교류 모습)	8 월 24 일 【시찰】 파주 비무장지대 (DMZ)
	
8 월 25 일 【시찰】 한국국립중앙박물관	8 월 25 일 【강의 · 문화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에 대한 이해”

3. 참가자의 감상 (발체)

◆ 일본 교원

학교 방문과 홈스테이처 교원과의 교류 등을 통해, 한국 교육현장에 대해 실제로 체험하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 일본 교원

학교 방문시 모의수업을 담당한 것은 제 교원생활 중에서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뛰어넘어 아이들이 색깔과 형태의 파악방법, 그리고 생각 등을 타자와 공유하는 재미를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일본 교원

홈스테이 체험과 한국 선생님들과의 교류 시간이 특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뉴스에서 보고 듣던 것을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교육과 문화에 대해 보다 리얼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앞으로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현장을 보고 배움을 심화하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 선생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귀중한 기회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개인 뿐만 아니라 학교 간의 교류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일본 교원

학교 방문에서는 실습과 수업 견학, 학생들과의 교류, 일본 선생님에 의한 모의수업, 한국 교원과 의 의견교환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에서는 관광으로는 알 수 없는 한국 분들의 생활을 접할 수 있었고, 따뜻한 호스트 패밀리들의 환대로 인해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방문에서는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홈스테이에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생각하는 데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4. 한국측 감상 (발체)

◆ 부천동초등학교

한일 국교 정상화 60 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일본선생님들의 본교 방문을 통해 한일 선생님들의 양국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선생님들이 오신다는 소식에 본교 학생들도 한 달 전부터 기대를 가졌고 본교에서는 정성을 다해 환영식과 교실환경,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선생님들께서 본교의 디지털 교수학습시설에 대해 많은 칭찬과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일본에도 '기가스쿨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일본선생님들과 함께 미래교육, 그리고 디지털 교수학습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면 서로 간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 수원공업고등학교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모두 젊고 유능한 분들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교육현장일지도 모

르지만,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일상과는 다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수업을 주의 깊게 견학하셨습니다. 실습형식의 수업은 교실과는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이 오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프로페셔널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활발한 교류 시대와 갈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우호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양국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교류’를 기반으로 하는 우호의 시대에 ‘교원’들이 공헌할 것을 기대합니다.

◆ 서울해누리초중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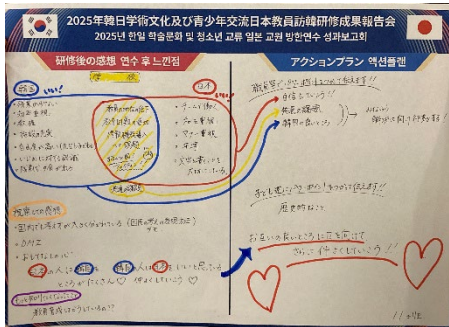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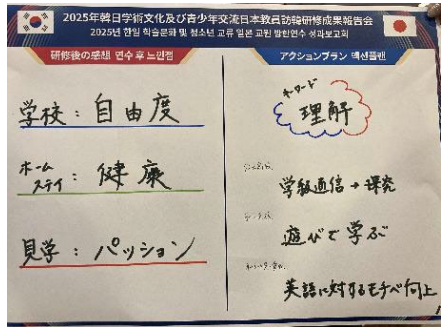
본교 학생들은 행사 전에 일본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를 하고, 간단한 일본어 인사말 등을 연습해서 일본 선생님들을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방문하신 날에는 참관하시는 일본 선생님들께서는 각각의 수업 내용을 열심히 보시고, 학생들의 활동들에도 직접 참여 하시는 등 한국 초등학교 수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일본 선생님들의 모의 수업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학교 생활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한일 교사 네트워크 형성 대면교류가 이번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교육과정부터 시작해서 학생들의 생활 및 교사의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질문하고 답하며 같은 교사로서 공감하며 열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의 선생님들을 근무교에서 대면해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 시간이 매우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발신 (발체), 보도기사 등

 韓国のご飯初体験！ 2025.08.21 韓国の小学校の給食初体験しました。 辛い物の自分はとてもワクワク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 食器や料理から韓国の人達が大切にしている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ました。配膳は給食の調理さんが全て盛り付けてくれます。主食、主菜、スープ全てワンプレートでした。 給食をテーマに日韓の食文化を比較する授業をしていけたらと思います。	 水原工業高等学校への訪問を行いました。授業の見学や、昼食体験、訪問団の先生が数学と体育の授業を生徒に行いました。日本の学生たちとの違いを感じた瞬間でした。韓国では、制服や給食費等が高校でも無償ということでした。それであの寮の給食を食べられるというのは、韓国は子供達への支援を積極的に行っている印象を受けました。 また、学校の設備がとても整っていて、ハイテクな機械などが多くあり、日本との差を感じました。見学した建築デザインの授業では、CADを使って実際にデザインを作成しており、就職に直結する学習ができるように感じました。
2025 년 8 월 21 일 (Instagram) 한국의 초등학교 급식을 체험했습니다. (중략) 식기와 음식에서 한국 분들이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배식은 조리사 분이 담아 주셨고, 주식과 반찬, 국 등 모두 원플레이트였습니다. 급식을 테마로 하여 일한 양국의 식문화를 비교하는 수업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2025 년 8 월 21 일 (Instagram) 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견학과 점심식사 체험, 방한단 교원이 수학과 체육 모의수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의 차이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복과 급식비가 고등학교에서도 무상이었습니다. (중략) 학교 설비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하이테크의 기계가 많이 있었

생각했습니다.	습니다. 견학한 건축디자인 수업에서는 취업에 직결되는 학습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水曜日から日韓学術文化交流事業訪韓団で渡韓して、 きょうはソウルのヘヌリ中学校1年3組で授業を実施！ 伝言鑑賞ゲームは、国を越えて活動できた。 韓国の美術科事情についても直接先生たちとディスカッ ションできた。『造形実験』など、執筆したものを渡し、ヘヌ リ中からも評価本をいただいたので、ババゴで訳しながら 勉強します！！ 	I've been to South Korea as a member of teacher's exchange program. Through this program, I was abl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and find the advantages of each. In addition, I was able to get to know teach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This experience is a treasure in my life.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teachers who were involved. 감사합니다 !! 또 만나요 🍀 
2025 년 8 월 22 일 (Facebook)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한단으로 한국에 있습니 다. 오늘은 서울해누리중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실시. 전언게임은 나라를 초월해 활동할 수 있 었습니다. 한국 미술과의 사정에 대해서도 직접 한국 선생님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집필한 책을 드리고, 해누리중학교에서도 미술 평가책을 받았는데 번역어플을 이용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2025 년 8 월 26 일 (Facebook)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한단의 단원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참가를 통해 일한 양국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전국에서 참가한 교원들과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있어 인생의 보물입니다.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제를 기재함)

	
【성과 발표】 해외의 학교를 시찰함으로써 일본 학교의 장 점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ICT 와 노트를 적 재적소에 나누어 사용하고 있었고, 통상 학급에 재적하는 특별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발전되 어 있는 점이 일본의 좋은 점입니다.	【성과 발표】 - 학교에서는 ‘자유도’를 느꼈습니다. 학생이 교 과서로 종이를 사용할지 PC 를 사용할지, 교복과 교원의 수업 방식, 수업 중의 음식섭취 등 일본 보다 자유도가 높다는 것을 느낀 것이 인상적이 었습니다. - 홈스테이에서는 환대를 받았고, ‘건강’에 대한

•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소통한 것이 즐거웠습니다. 교류의 장점을 실감했습니다. • 아동과 보호자와의 관계, 교원간의 관계 등 일본과 한국의 교원은 공통점도 많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 DMZ 를 방문하여 한반도에서의 남북관계의 역사와 지금 현재의 관계성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액션플랜】 • 한국 학교와의 온라인 교류와 편지를 통한 교류를 통해, 평화의 싹을 키워나감으로써 일한 우호의 가교가 되기 • 자신의 홈스테이 경험을 통해 아동에게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아동이 자국의 장점을 인식하고 자국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기 • 전교 아동 대상으로 일한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게시물을 작성하여 교내에 게시하기 • 학교방문시에 보고 들은 것과 느낀 것에 대해 동료들에게 공유하기 • 본 프로그램의 매력을 발신하고 홍보하기	높은 의식을 느꼈습니다. 식후에 2 시간 산책을 했는데 건강지향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런닝을 하고 있었습니다. • 각종 시찰에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열정’을 느꼈습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개발, DMZ 견학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향한 강한 의지, 남산타워에서는 조명 색깔로 시민들에게 환경상태를 알려 환경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등 나라 전체가 미래를 의식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액션플랜】 • 방일단에 참가한 한국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와, 올해 10 월과 내년 2 월에 대면 상호교류를 계획하기 • 학급통신으로 이번 경험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다문화이해를 촉진하기 • 레포트를 작성해, 교직원에게 배포하기 • 탐구활동으로 교류로 이어나가기 • 해외에 대한 의식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놀이(게임) 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 • 온라인 교류부터 시작해 대면교류까지 이어나가기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